

## 금융의 힘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이끈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정책토론회 (타운홀 미팅) 개최
- 탈탄소 성장전략을 투자기관과 공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 금융계, 관련 기업이 함께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6일 유진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탈탄소 성장전략을 주제로 금융업계와 ‘정책토론회(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탈탄소 신성장 전략인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수립 방향을 금융권과 공유하고,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주재하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고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 촉진을 주제로 금융계 전문가와 논의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과 재생에너지·전기차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 가속 및 산업의 탈탄소 촉진 등에 있어 금융부문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아울러 신시장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내년(2026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녹색전환 추진전략’은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국가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기차 및 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육성 등을 포함하여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 등 재정적 지원과 수출 동력화를 위한 ‘팀코리아 (Team-Korea)’ 구축 등을 포함하는 지원체제도 마련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의 세계사적인 경제성장에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왔듯이, 앞으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금융계 및 산업계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민관이 원팀을 이루어 맞춤형 투자의 본보기를 만드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타운홀 미팅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6690)



**1 추진 배경**

- 2035 NDC 이행 및 탈탄소 성장전략인 K-GX 수립방향을 투자기관과 공유, 재생e 확대 및 산업육성에 금융이 촉진자로 선도하는 방안 논의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5.11.26(수) 16:00~17:30 / 유진빌딩(여의도 국제금융로 24)
-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금융투자사 CEO/CIO 및 투자 실무책임자, 주요 국내 민간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 등
- 세부 일정 ※ 모두 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2 (2')	주제 영상	
16:02~16:05 (3')	모두 말씀	기후부 장관
16:05~16:09 (4')	탈탄소 녹색전환과 K-GX 수립방향	녹색전환정책관
16:09~16:13 (4')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대한민국	패널
16:13~17:27 (74')	<녹색전환 주제별 토론> ① 태양e 이용 확대와 산업 육성방향 ② 육해상 풍력 확대 정책 ③ 전기차 2030 목표 달성 정책 ④ 산업의 탈탄소 방향	참석자 전원
17:27~17:30 (3')	마무리 말씀	기후부 장관